

# 『물명고』의 이본과 상호 관계

---

박꽃새미

광운대학교 인제니움학부대학 강사, 국어사 전공

elenanant@naver.com

황문환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교수, 국어사 전공

hmhmoon@aks.ac.kr

---

I. 서론

II. 『물명고』의 이본 현황과 서지

III. 『물명고』이본의 상호 관계

IV. 결론

---

## I. 서론

유희의 『물명고(物名考)』<sup>2</sup>는 ‘100대 한글 문화유산’에 포함될 만큼 그 가치가 널리 인정된 책이지만 아직 친필 원본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책에 속한다. 다행하게도 유희의 『물명고』는 전사본(轉寫本)을 통하여 그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전사본은 총 5종이다.

『물명고』이본 5종 가운데 일본의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소장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구(舊) 정양수(鄭亮秀) 소장본이 먼저 학계에 소개되었으며,<sup>3</sup> 이후 유희 후손가에서 소장되어 있던 전사본 1종이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면서 총 5종의 이본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

※ 이 글은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물명고』의 종합적 검토라는 주제로 개최된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원고 박꽃새미·황문환, 『물명고』의 이본과 상호 관계, 전통한국연구소·어문생활사연구소 학술대회(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23. 11. 3)를 수정·보완하여 작성된 것이다.

- 1 柳僖: 1773~1837년. 본관은 풀주. 호는 西陂·方便子·南嶽. 『시물명고』, 『언문지』 등을 저술한 학자이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柳僖’의 姓은 ‘류’ 또는 ‘유’로 쓰인다. 이 글에서는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라 ‘유희’를 사용했다. 단, 선행연구를 직접 인용할 경우 인용 논문을 그대로 반영하여 ‘류희’로 표기한 경우도 있음을 밝혀 둔다.
- 2 『物名考』는 ‘物名類考’, ‘物名類攷’라고 쓰이기도 했다[양연희, 「物名類攷에 관한 고찰: 語彙, 音韻과 文字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6); 조재운, 「[物名類攷]의 研究: 表記와 音韻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1978);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건」, 『새국어생활』 10-3(2000); 김대식, 「『물명류고』의 생물학적 연구: 물고기 이름 분류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10-3(2000)]. 위당 정인보가 조사한 『文通』 속 유희의 저술 목록에도 ‘物名類攷’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지금까지 전하는 어떠한 책에서도 내제나 외제에 ‘物名類考’ 또는 ‘物名類攷’라 되어 있는 책은 없다[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학회(편),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학회, 2000), 50쪽; 황문환, 「『物名考』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편),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0쪽].
- 3 홍윤표, 위의 논문, 58쪽.

것이다.<sup>4</sup> 이에 더하여 최근 필자들은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에 또 다른 『물명고』 이본 1종이 소장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다.<sup>5</sup> 이로써 유희의 『물명고』 이본은 총 6종이 현전하는 것으로 확인된다.<sup>6</sup>

그동안 『물명고』 이본에 대하여는 자료 소개 이상의 논의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본 4종(다카하시 도루 소장본, 서울대학교 가람문고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구 정양수 소장본)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면서 구 정양수 소장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고 추정한 바 있다.<sup>7</sup> 또한 이본 4종의 한글 표기를 간략히 비교하여 ‘가람문고본과 국립중앙도서관본’이 유사하고, ‘다카하시 도루 소장본과 구 정양수 소장본’이 유사하며, 후자가 원본에 가장 근사할 것이라고 추측한 연구<sup>8</sup>도 있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는 『물명고』 이본을 두 부류로 분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겠으나, 구 정양수 소장본 전체를 검토한 결과가 아닌 극히 일부(1~3엽)를 검토한 결과라는 점을 감안하면 ‘구 정양수 소장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울 것’이라는 추정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물명고』 이본에 관한 논의가 거의 이루

---

4 황문환, 앞의 책, 10~12쪽.

5 필자들은 이화숙 선생님(대구가톨릭대학교)을 통하여 『가람일기』의 기록 중에 가람 이병기가 애류 권덕규로부터 유희의 『물명고』를 빌려 전사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박철민 선생님(한국학중앙연구원 박사)을 통하여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에 애류 권덕규의 인장이 찍힌 『물명고』 1종이 소장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가람일기』의 내용과 일석문고 소장 『물명고』의 존재를 알려 주신 두 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6 익명의 심사자는 국립한글박물관 등 국내 다른 기관에도 『물명고』가 소장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을 알려주셨다. 실제로 국내 여러 기관에 『물명고』라는 서명의 책이 여럿 존재한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는 정확한 고증 없이 단지 『물명고』라는 서명만으로 저자를 ‘유희’로 판단하고 서지정보에 제시한 경우가 있다. 이 글에서는 ‘유정류·무정류·부동류·부정류’의 분류체계를 따르고, 물명에 대한 유희의 주해가 베껴어진 『물명고』를 ‘유희’의 『물명고』라고 보았다.

7 홍윤표, 앞의 논문, 59쪽.

8 전광현, 앞의 논문, 48쪽.

어지지 않은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본들 사이에 “그 내용에는 차이가 별로 없다.”<sup>9</sup>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현존 이본을 대비해 보면 한문으로 기술된 내용에서 일부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고 특히 한글 대응어에 있어서는 유무를 포함하여 여러 차이가 포착되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이본 대비가 요청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현존 6종의 이본과 관련하여 각 이본의 서지사항을 재점검하는 한편, 이본 대비를 바탕으로 이본 간의 상호 관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친필<sup>10</sup> 원본이 전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업은 앞으로 유희의 『물명고』를 연구하고 활용하는 데 보다 확실한 토대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 『물명고』의 이본 현황과 서지

한국학중앙연구원은 2005년 유희 후손가로부터 『문통』을 포함한 유희 관련 문헌을 기탁받아 장서각에서 보존·관리하고 있다.<sup>11</sup> 이 문헌들 가운데 유

---

9 홍윤표, 앞의 논문, 58쪽.

10 익명의 심사자는 유희의 친필 원본 『물명고』를 파악하기 위해 유희의 친필 기준본이 확인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유희의 친필은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유희의 간찰(소장품 번호: 구 7041, 7042)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덕수, 「文通의 계통 연구: 句錄과 文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7-3(2014), 257~296쪽; 장유승, 『『方便子文錄』異本研究』, 『한국실학연구』 32, 2016, 49~78쪽. 위 두 연구에서는 유희의 후손가에 전해지는 『문통』 가운데 『方便子句錄』에 유희의 친필이 남아 있다고 보았다.

11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앞의 책.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는 유희 후손가로부터 서파 유희 관련 자료를 2차례에 걸쳐 수집했다. 2001년에 1차로 74종 74책, 2003년에 2차로 45종 45책이 수집·정리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기탁되어 현재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 자세한 수집 경위와 목록은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위의 책을 참조할 수 있다. ‘장서각 소장본’의 건책은 ‘1차 정리본’ 순번 33번, 곤책은 ‘2차 정리본’ 순번 1번에 해당한다. ‘구정양수 소장본’의 상책은 ‘2차 정리본’ 순번 10번, 하책은 ‘1차 정리본’ 순번 34번에 해당한다.

회의 『물명고』 2종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중 1종은 기존 연구들에서 ‘정양수 씨 소장본’으로 불리었던 바로 그것이다. 소장처가 장서각으로 바뀌기는 했지만 본래 정양수 씨가 소장하고 있다가 유희 후손가에 돌려준 것이므로 이 글에서는 ‘구 정양수 소장본’이라고 칭하고, 유희 후손가에 소장되다가 장서각에 기탁, 소장된 다른 1종은 ‘장서각 소장본’으로 칭하여 구분하기로 하겠다. 후술하겠지만 ‘구 정양수 소장본’은 내용 일부가 누락된 결본이므로 우선 ‘장서각 소장본’의 서지부터 점검해 보기로 한다.

## 1.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이하 ‘藏本’으로 약칭)은 불분권 2책(건·곤)의 필사본이다. 표제는 좌측 상단에 ‘문통(文通)’, 우측 상단에 ‘물명고(物名考)’라고 쓰여 있다. 건책의 수제(首題)는 ‘방편자찬물명고(方便子纂物名考)’, 곤책에는 ‘방편자찬문통(方便子纂文通)’으로 되어 있다. 藏本은 2007년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영인하여 간행한 바 있다.<sup>12</sup> 기본적인 서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분권 2책(乾·坤). 필사본.

책의 크기<sup>13</sup>: (乾)29.5×20.3cm, (坤)29.0×19.9cm. 五針線裝.

필사면: 1면 12행, 1행 25자 내외. 협주: 小字雙行.

표제: 文通(좌측 상단), 物名考(우측 상단). 책차(乾·坤) 표시가 있음.

수제: (乾)方便子纂物名考, (坤)方便子纂文通.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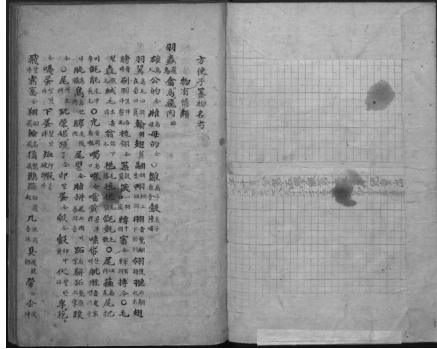
12 위의 책.

13 책 크기는 위의 책에 따랐다.

藏本 乾



藏本 乾:1a



藏本 坤



藏本 坤: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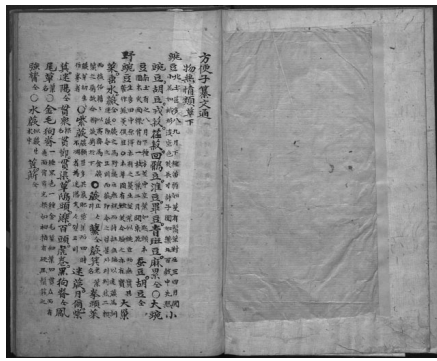


그림1-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본

藏本은 본문의 분류명(예: 羽蟲)과 주표제어(예: 豌豆, 野豌豆)를 대두(檀頭)로 한 자 높여 썼고, 한 단락 내 주표제어를 제시할 때에는 표제어 앞에 원권(○)으로 표시했다. 표제어 아래에는 소자쌍행으로 해당 표제어에 대한 주해를 했고, 주해 다음에 유의어를 나열할 때에는 소자쌍행이 아닌 굵은 글씨로 했다. 유의어가 둘 이상인 경우 고리점(.)을 사용하여 구분했다.

흥미로운 것은 유희의 후손이 작성한 자료에서 『물명고』의 전사 기록을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유희의 증손인 유근영(柳近永, 1897~1949)은 유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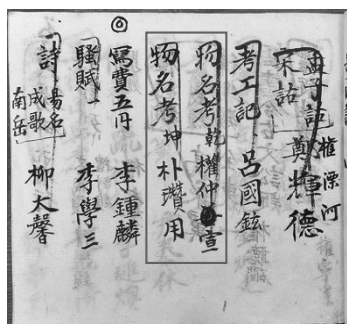


그림2-『문통초수록』

유고를 『방편자전서(方便子全書)』로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정서(淨書) 작업을 진행했다. 『문통초수록(文通抄手錄)』<sup>14</sup>에는 이 작업에 참여한 인물과 비용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물명고』 건책과 곤책의 전사자가 명시적으로 확인된다. 곧 건책은 ‘권중선(權仲宣)’이, 곤책은 ‘박찬용(朴瓊用)’이 각각 전사를 담당했는바, 확인 표시( )까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현존 이본 가운데 책차가 ‘건·곤’으로 표시된 것은 藏본이 유일하고, 藏본이 유희 후손가에서 전승된 점까지 함께 고려하면 『문통초수록』에 기록된 『물명고』는 바로 이 藏본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1931년 11월에 병산서원 유생들이 경상도 내에 통문을 돌려 유근영의 『문통(文通)』 출간 사업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아 유근영이 『문통』 출간을 기획한 것은 1931년경이라 할 수 있다.<sup>15</sup> 또한 『문통수계부(文通修契簿)』<sup>16</sup>에는 1939년 12월부터 1946년 12월까지 『문통』 간행 비용을 모금한 내역과 지출 내역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문통』의 간행은 1931~1946년까지 약 15년간 추진되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藏본의 전사는 1931~1946년 사이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크다.

14 ‘1차 정리본’ 64번에 해당한다. 위의 책, 7쪽.

15 오보라, 『西陂 柳僖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8), 12쪽.

16 ‘1차 정리본’ 65번에 해당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앞의 책, 7쪽.

## 2. 구 정양수 소장본

구 정양수 소장본(이하 ‘鄭본’으로 약칭)은 불분권 2책(상·하)의 필사본이다. 藏본과 마찬가지로 표제는 좌측 상단에 ‘文通’, 우측 상단에 ‘物名考’라고 쓰여 있으며, 상책의 수제는 ‘방편자찬물명고(方便子纂物名考)’, 하책은 ‘방편자찬문통(方便子纂文通)’으로 되어 있다.<sup>17</sup>

정양수 씨는 유근영의 유족을 통하여 1950년대 말부터 유희의 저술을 접하게 되었고, 그것을 빌려다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대창고등학교) 학생들을 동원하여 펜글씨로 전사했다고 한다.<sup>18</sup> 이 글에서 다루는 鄭본은 학생들이 펜글씨로 전사한 것이 아닌 붓글씨로 전사된 것으로 한국어문교육연구회<sup>19</sup>에서 영인하여 간행했던 저본과 동일한 것이다. 鄭본은 현재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으며<sup>20</sup>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분권 2책. 필사본.

책의 크기<sup>21</sup>: (上)31.0×20.6cm, (下)31.0×20.0cm, 五針線裝.

필사면: 1면 12행, 1행 25자 내외. 협주: 小字雙行.

17 하책의 첫 장과 마지막장은 『물명고』를 전사하다가 잘못 써서 발생한 休紙를 백면처럼 활용했다.

18 정양수, 「내가 아는 柳僖와 그 關聯資料考」, 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학회(편), 앞의 책, 75쪽.

19 위의 책.

20 鄭본이 유희 후손가로 돌아오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류재중, 「류희 「문통」의 여정(旅程)」, 진주류씨대종회(편), 『晉州柳氏詩文資料集(西陂 柳僖 家門의 詩文集) 七卷』(광명: 진주류씨대종회, 2023), 708~709쪽의 다음 진술을 참고할 수 있다. “2001년 류근영씨의 큰따님인 류내홍(柳來洪, 1933~2022)씨는 당시 필자가 정양수 선생님의 보관중인 「문통」책에 대해 질문하자 “꼭 필요하다면 제가 정선생님을 찾아뵈면 책을 돌려 받을 수 있다. 말씀드리면 정선생님이 거절 못하신다”했다. 당시 「문통」 저작물 일부를 정선생에 가져다 준 사람이 바로 류내홍씨였다.”

21 한국학중앙연구원(편), 앞의 책, 2~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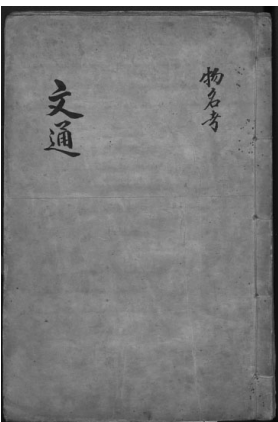


표제: 文通(좌측 상단), 物名考(우측 상단). 책차 표시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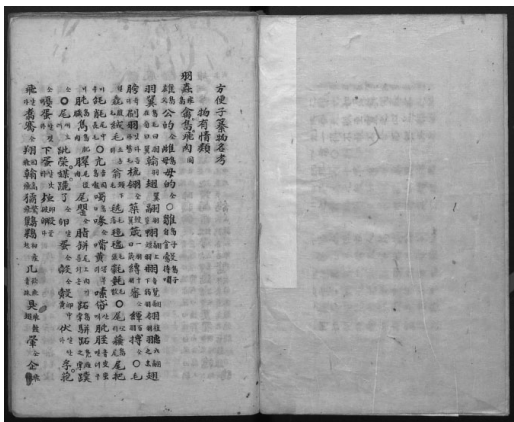
수제: (上)方便子纂物名考, (下)方便子纂文通.

鄭본은 藏본과 달리 표제 아래에 ‘건·곤’과 같은 책차 표시가 없다. 다만 제2책 1면 하단에 사인펜으로 ‘下’라고 쓰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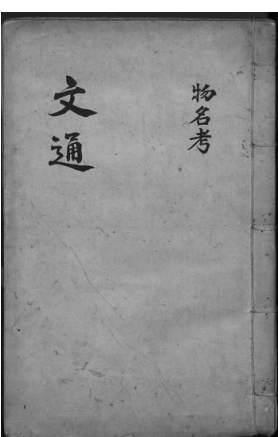
鄭본 上



鄭본 上: 1a



鄭본 下



鄭본 下: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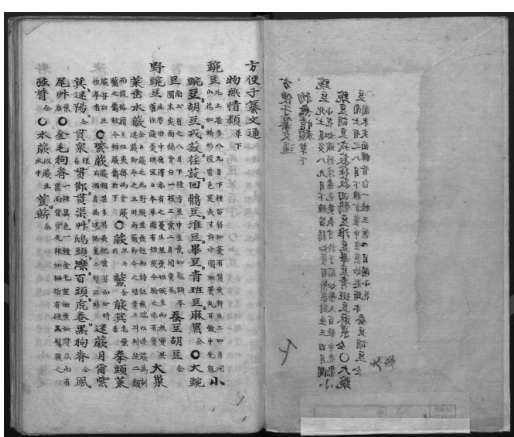


그림3-구 정양수 소장본

따라 이 글에서는 鄭본의 책차를 일단 ‘상·하’로 구분해 두었다.<sup>22</sup>

鄭본은 藏본과 체제상 많은 부분이 공통된다. 우선 수제가 ‘방편자찬물명고(方便子纂物名考)’, ‘방편자찬문통(方便子纂文通)’으로 서로 일치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1책(건, 상)이 ‘녹두(綠豆)’ 항목으로 끝나고, 제2책(곤, 하)이 ‘완두(豌豆)’ 항목부터 시작하는데 이러한 분책(分冊) 경계도 藏본과 정확히 일치한다.<sup>23</sup> 심지어 각 면의 행수와 자수까지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본문에 분류명과 표제어를 대두로 한 자 높여 쓴 점, 한 단락 내 주표제어를 제시할 때 원권(○)으로 표시한 점, 유의어가 둘 이상인 경우 고리점(.)을 사용한 점 등 藏본의 형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전사되었다. 다만 鄭본은 목부(木部, 하: 29b 이하)부터 원권을 충실히 표시하지 않고 빈칸으로 비워 둔 경우가 많다.

鄭본과 藏본의 가장 큰 차이는 鄭본에 ‘수족(水族)’ 내용 전체(藏본의 건: 17a~26b에 해당. 10장 분량)가 누락되어 완본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부분은 鄭본을 전사할 당시 빠뜨리고 전사하지 않은 것인지, 나중에 장정을 할 때 누락된 것인지 알 수 없다. 또한 藏본과 비교할 때 鄭본은 종이를 덧대어 수정한 부분이 많은 특징도 발견된다. 그 밖에 鄭본의 하책에는 본문의 의심스러운 내용에 대해 난하에 ‘疑’ 등으로 전사와 관련한 의견을 표시한 부분이 나타나 특히 주목된다(이에 대해서는 III장에서 상술).

### 3. 일본 다카하시 도루 소장본

일본 다카하시 도루 소장본(이하 ‘曰본’으로 약칭)은 5권 1책의 필사본이

---

22 기존 연구들에서도 鄭본의 책차를 상·하로 구분했다. 홍윤표, 앞의 논문; 정양수, 앞의 논문.  
23 2권 1책으로 된 가람문고본, 일석문고본, 국립중앙도서관본에서는 권1이 ‘野蠶豆’ 항목으로 끝나고 권2가 ‘浹明’ 항목부터 시작하여 분권 경계가 다르다.

다. 日本은 아유카이 후사노신(1864~1946)<sup>24</sup>이 비장본(秘藏本)으로 소장하고 있다가,<sup>25</sup> 그가 사망한 뒤 가까운 혈족인 나가마 고운<sup>26</sup>의 손을 거쳐서 다카하시 도루(1878~1967)<sup>27</sup>에게 전증된 것이다.<sup>28</sup> 1960~1961년에 일본의 조선학회<sup>29</sup>에서 영인했고, 1975년에 한국의 경문사<sup>30</sup>에서 『물보(物譜)』와 함께 묶어서 다시 영인한 바 있다. 현재 日本의 원본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sup>31</sup> 이 영인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영인본에서 표제와 수제는 모두 ‘물명고(物名考)’로 확인된다. 기본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5권(一·二·三·四·五) 1책. 필사본.

책의 크기: (원본 확인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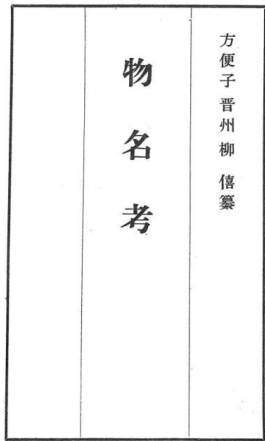
필사면: 1면 15행, 1행 27자. 협주: 小字雙行. 장차 없음. 계선 있음.

표제: (원본 확인 불가).

수제: 物名考.

- 
- 24 鮎貝房之進: 1864년 2월 11일~1946년 2월 24일. 일본 미야기현 게센누마시 출신의 한국어(조선어)학자이자 역사학자이다.
- 25 선행 연구에 따라서는 ‘鮎貝房之進’ 소장본이라 명명하기도 했다.
- 26 長間光雲: 생물년 미상.
- 27 高橋亨: 1878년 12월 3일~1967년 9월 4일. 조선총독부 종교·도서 조사 촉탁을 거쳐 경성 제국대학 조선어학문학 교수를 역임하고 해방 후 일본에서 조선학회 창설을 주도한 식민 지시기 대표적인 관학자이다. 김용태, 「高橋亨의 조선학, 『李朝佛教』와 조선사상의 특성」, 『한국사상사학』 61(2019); 강명숙, 「高橋亨의 「조선 교육제도 약사」에 대한 일 고찰: 일제 강점기 조선 거주 일본인의 한국교육사 연구와 그 한계」, 『한국교육사학』 38-4(2016).
- 28 高橋亨, 「物名考解説」, 『朝鮮學報』 16(1960), 409쪽.
- 29 朝鮮學會, 「物名考 卷一」, 『朝鮮學報』 16(1960a), 199~223쪽; 朝鮮學會, 「物名考 卷二」, 『朝鮮學報』 17(1960b), 215~242쪽; 朝鮮學會, 「物名考 卷三」, 『朝鮮學報』 18(1961a), 159~216쪽; 朝鮮學會, 「物名考 卷四」, 『朝鮮學報』 19(1961b), 193~218쪽; 朝鮮學會, 「物名考 卷五 正誤·攷「正·索引」」, 『朝鮮學報』 20(1961c), 179~248쪽.
- 30 유희, 『物名考·物譜(影印本)』(서울: 경문사, 1975).
- 31 다카하시 도루 사망 이후 日本의 현재 소장처는 확인되지 않는다.

日本



日本 一: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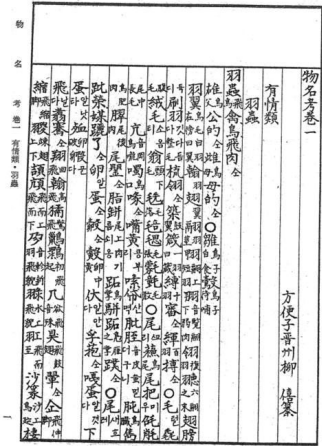


그림4-일본 다카하시 도루 소장본<sup>32</sup>

日本은 5권 1책의 체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 다른 이본과의 두드러진 차이점이다. 다른 이본들은 제1책(乾 또는 上)에 유정류(有情類)와 무정류(無情類)의 초부(草部) 전반부까지 배치하고, 제2책(坤 또는 下)에 초부 후반부부터 부동류(不動類), 부정류(不靜類)를 배치했다. 그에 비해 日本은 철저히 분류명에 따라 분권을 했다. 권1에는 유정류의 우충/수(羽蟲/獸), 권2에는 유정류의 수족/곤충(水族/昆蟲), 권3에 무정류의 초(草), 권4에는 무정류의 목(木), 권5에는 부동류의 토/석/금(土/石/金)과 부정류의 화/수(火/水)를 배치했다. 권5 뒤에는 정오(正誤)를 제시하여 본문의 잘못을 바로잡았다.

한 단락 내 주표제어를 제시할 때 표제어 앞에 원권(○)으로 표시한 점은 藏本·鄭본과 동일하나, 대두로 높여 쓰는 방식은 취하지 않았다. 다른 이본과 달리 계선이 있고, 유의어를 나열할 때는 고리점이 아닌 모점(.)으로 구분했다.

32 유희, 앞의 책.

난상에 별도의 여백을 마련하여 두주를 배운 것도 특징이다. 아유카이 후사노신은 『물명고』의 사본을 손에 넣어 반복하여 정독하고 간간이 보흠정오(補欠訂誤)를 두주에 써 넣었다.<sup>33</sup>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두주에 참고한 책은 『옥편(玉篇)』·『신자전(新字典)』·『조선어사전(朝鮮語辭典)』·『사전(辭典)』·『언해(言海)』·『미암일기(眉巖日記)』·『동각잡기(東閣雜記)』·『의방고(醫方考)』·『식물도감(植物圖鑑)』·『역어유해(譯語類解)』·『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본초강목(本草綱目)』·『동의보감(東醫寶鑑)』·『세종실록(世宗實錄)』·『여지승람(輿地勝覽)』 16종이다.<sup>34</sup> 이 중 가장 늦은 시기의 문헌은 1938년 문세영(文世榮)이 편찬한 『조선어사전』이므로 日本은 1938년 이전에는 전사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 4.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 소장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 소장본(이하 ‘嘉本’으로 약칭)은 2권(一·二) 1책의 필사본이다. 표제와 수제 모두 ‘물명고(物名考)’로 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 藏本·鄭本·日本에는 책의 목차가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嘉本에는 권 1의 앞에 목차에 해당하는 ‘物名考 目錄’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위 세 이본에는 수제에 ‘방편자찬(方便子纂)’이라는 찬자 표시가 되어 있으나 嘉本에는 ‘방편자유희저(方便子柳僖著)’라는 저자 표시로 나타난다. ‘찬(纂)’은 ‘모아서 편찬하다.’라는 뜻이고, ‘저(著)’는 ‘지어서 찬술하다.’라는 뜻이므로 엄밀

33 다카하시 도루의 진술에 따르면, 日本의 두주를 작성한 이는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다. 高橋亨, 앞의 논문, 413쪽. 필자는 日本의 본문 내 초성 ‘ㅌ’, 중성 ‘ㄴ’, 종성 ‘ㄹ’의 글자체, 종성 ‘ㅌ’의 위치 등을 고려해 보았을 때 본문과 두주를 작성한 이가 동일한 인물, 즉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고 판단했다.

34 이 외에도 난상에 ‘物名考’가 인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동명이서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위의 논문, 413쪽.

한 의미에서 문헌의 성격상 차이가 있다. 한편 세부 분류명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차가 매겨진 것도 위 세 이본과의 차이점이다. 구체적인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2권(一·二) 1책(117장). 零本. 필사본.

책의 크기: 33.7×21.3cm. 五針線裝.

필사면: 1면 12행, 1행 24자. 협주: 小字雙行. 장차 있음.

표제: 物名考.

수제: 物名考.

印: 梅華屋珍玩, 龍華山房藏.

청구기호: 가람031-Y91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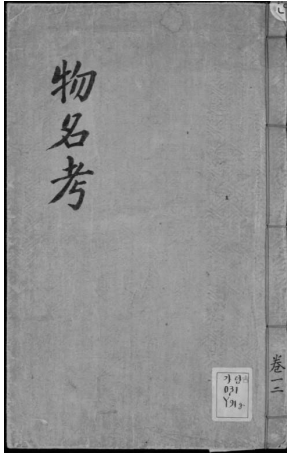
마이크로필름: M/F85-16-287-F, M/F71-4-5-J, M/F71-5-4-H.

본문에 분류명을 대두로 한 자 높이 쓴 점, 한 단락 내 주표제어를 제시할 때 원권(○)으로 표시한 점은 藏本の 형식과 동일하나, 유의어를 나열할 때 고리점이나 모점을 사용하지 않고 빈칸으로 구분했다. 종이를 덧대어 수정한 부분도 나타난다. 난상에는 위 세 이본에는 없는 한글 대응어를 추가한 곳도 발견된다.

嘉本에는 가람(嘉藍) 이병기(李秉岐, 1891~1968)의 인장 ‘매화옥진완(梅華屋珍玩), 용화산방장(龍華山房藏)’이 찍혀 있다. 이병기가 『물명고』를 입수하게 된 경위는 『가람일기』를 통해 알 수 있다. 『가람일기』에 기록된 『물명고』의 필사 경위는 다음과 같다.

(1932년) 11월 28일. 서북풍西北風. 차다. 산머리에는 눈이 하얗다. 애류崖溜에게서 얻어온 『물명고物名考』(유희柳僖의 저著)를 옆방에 든 송서방宋書房을 시

嘉本



嘉本 一: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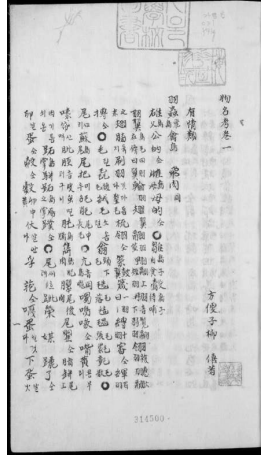


그림5-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가람문고 소장본

겨 벗기다. ...<sup>35</sup>

(1933년) 2월 19일. 맑다. ... 애류崖溜과 같이 매헌梅軒을 찾아보고 나는 애류崖溜의 집에까지 가서 저녁밥을 먹고 『광재물보廣才物譜』 전질全帙 4책四冊을 얻어 오다. 방편자方便子 『물명고物名考』를 환완還完하다.<sup>36</sup>

이 기록에 따르면, 이병기는 1932년 11월 28일 권덕규로부터 『물명고』를 얻어 왔으며 1933년 2월 19일에 권덕규에게 돌려주었다. 이병기는 『물명고』를 직접 베껴 쓰지 않고 ‘옆 방에 든 송 서방’에게 필사하도록 했다. 따라서 嘉本の 필사자는 ‘송 서방’이며, 필사 시기는 1932년 11월 28일~1933년 2월 19일 사이임을 알 수 있다.

35 이병기(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편), 『가람 이병기 전집 9: 일기 IV』(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2021), 139쪽.

36 위의 책, 158~159쪽.

## 5.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 소장본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 소장본(이하 ‘石本’으로 약칭)은 2권 1책(一·二)의 필사본으로, 기존 연구에서는 아직 유희의 『물명고』 이본으로 다루어진 바가 없었다. 石本에는 일석(一石) 이희승(李熙昇, 1896~1989)의 인장인 ‘一石이희승장서, 일석서소(一石書巢)’와, 권덕규(權惠奎, 1890~1950)의 인장 ‘홍익인간(弘益人間), 애류장서(崖溜藏書)’가 찍혀 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1932년 11월 28일에 이병기가 권덕규에게서 빌려 갔던 책임을 알 수 있다. 石本の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2권(一·二) 1책. 필사본.

책의 크기: 31.8×20.0cm. 五針線裝.

필사면: 1면 12행, 1행 24자. 협주: 小字雙行. 장차 있음.

표제: 物名考.

수제: 物名考.

印: 一石이희승장서, 一石書巢, 弘益人間, 崖溜藏書.

청구기호: 일석古031-Y91mp.

石本은 嘉本の 저본인 만큼 표제와 수제가 ‘物名考’로 일치하고, 목차에 해당하는 ‘物名考 目錄’이 제시된 점, 세부 분류명을 기준으로 별도의 장차가 매겨진 점, 찬자 대신 저자 표시가 나타나는 점 등 嘉本과 동일한 형식을 취하고 있다. 嘉本에 적힌 두주도 대부분 石本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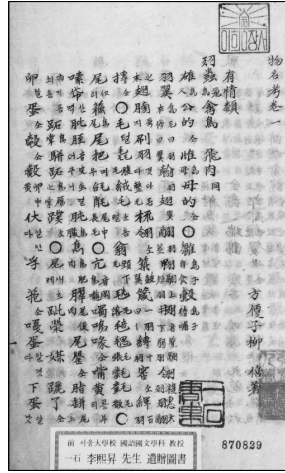
권덕규가 어떻게 유희의 『물명고』를 입수하게 되었는지, 또 권덕규가 소장하고 있던 『물명고』가 어떻게 이희승에게 전해지게 되었는지 현재로서는



石本



石本 一: 1a



卷二의 인장  
위: 弘益人間  
아래: 崖溜藏書



그림6-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일석문고 소장본

그 경위를 파악하기 어렵다.<sup>37)</sup> 그러나 적어도 ‘송 서방’이 전사했다고 한 嘉本の 저본은 밝혀진 셈이다. 石本の 필사 시기는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우나 이 병기가 권덕규에게 『물명고』를 빌린 날짜가 1932년 11월 28일이므로 石本은 그 이전에 필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37 『方便子 文錄 文通 卷之十七』(雜文·騷賦)의 끝에「拾文記入」에 권덕규의 저서 『朝鮮語文經緯』(1923)의 첫머리에 실린 『諺文志』의 내용 일부를 유근영이 1930년에 옮겨 쓴 기록이 보인다. 따라서 유희의 저술 일부는 1930년 무렵에 정서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병근, 『10월의 문화인물: 유희』(서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0), 25쪽. 한편 위당 정인보(1894~1950)에게 1930년대에 『胎教新記』의 서문을 부탁할 때 유희의 유고들을 보여주는 과정에서 유고가 더러 세상에 알려졌고, 이때 일석 이희승이 『언문지』를 베껴 중국에서 납 활자로 출간한 바 있다. 정양수, 앞의 책, 305쪽. 이러한 정황은 유근영, 권덕규, 이희승 3인이 모종의 연관성이 있었음을 추측케 하나, 현재까지의 단서만으로 『물명고』가 어떻게 권덕규의 손을 거쳐 이희승에게 전달되었는지 그 경위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 6. 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 소장본

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 소장본(이하 ‘國本’으로 약칭)은 불분권 1책의 필사본이다. 표제와 수제 모두 ‘物名考’로 되어 있는 것은 ‘嘉本·石本’과 동일하나, ‘嘉本·石本’에는 수제 뒤에 권차(卷一·卷二)가 쓰여 있는 반면, ‘國本’에는 권차가 없다. 또한 ‘嘉本·石本’은 장차가 매겨진 반면, ‘國本’에는 장차 표시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목차에 해당하는 ‘物名考 目錄’이 제시되어 있는 점은 ‘嘉本·石本’과 동일하다.

‘國本’에는 위창 오세창(吳世昌, 1864~1953)이 『물명고』를 입수하게 된 경위를 알 수 있는 단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김형태<sup>38</sup>가 ‘國本’을 저본으로 역주서를 간행한 바 있으며,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불분권 1책(111장). 필사본.

책의 크기: 24.5×23.5cm, 線裝.

필사면: 1면 12행, 1행 24자. 협주: 小字雙行. 장차 없음.

표제: 物名考.

수제: 物名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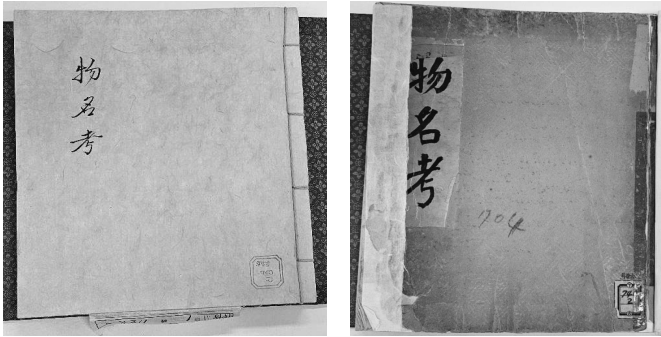
청구기호: 위창古740-2.

본문에 분류명을 대두로 한 자 높여 쓴 점, 한 단락 내 주표제어를 제시할 때 원권(○)으로 표시했고, 유의어를 나열할 때 빈칸으로 구분했다는 점에서 嘉本·石本과 동일하다. 國本에는 嘉本·石本에는 보이지 않는 빨간색 원권이 대두된 분류명과 모든 주표제어에 찍혀 있다. 종이를 덧대어 수정한 부분이

---

38 김형태, 『물명고(상·하)』(서울: 소명출판, 2019).

國本



國本 1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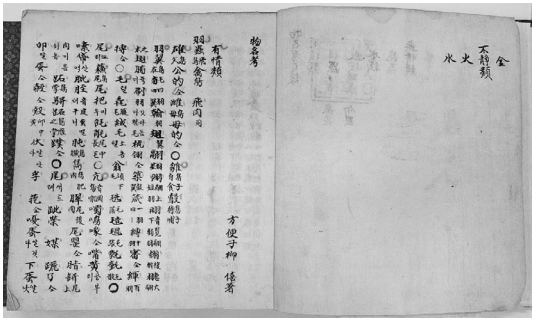


그림7-국립중앙도서관 위창문고 소장본

군데군데 보이며 난상에 한글 대응어를 추기한 곳도 발견된다.

지금까지 『물명고』 이본 6종의 서지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해 보면 『물명고』 이본 6종은 크게 藏本·鄭本·日本(이하 A계열)과 嘉本·石本·國本(이하 B계열)의 두 계열로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A계열은 목차 없이 수제에 이어 바로 본문이 시작되는 반면 B계열은 권수면 앞에 목차가 제시되어 있다. 또한 A계열에는 ‘方便子纂’이라는 찬자 표시가 나타나는 데 비해 B계열에는 ‘方便子柳僖著’라는 저자 표시가 되어 있다. 유의어 나열 시 A계열은 기호(고리점 또는 모점)를 사용했으나, B계열은 빈

표1-『물명고』 이본 6종의 서지상 특징

구분	A계열			B계열		
	藏本	鄭本	日本	嘉本	石本	國本
목차	없음			있음		
장차 표시	없음			있음		없음
분권 체제	不分卷		5권 (一·二·三·四·五)	2권 (一·二)		不分卷
	2책(乾·坤)	2책(上·下)	1책	1책	1책	
纂/著 표시	方便子纂物名考 方便子纂文通		方便子晋州柳僖纂	方便子柳僖著		
유의어 나열	고리점(。)		모점(、)	빈칸		
누락 내용	없음	水族(10장)	없음	없음		

칸을 두어 단어를 구분한 것도 차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크게 두 계열로 나누어 볼 수 있기는 하되) A계열 중 ‘日本’은 5권으로 분권되어 있고, 계선과 난상 두주를 위한 여백을 따로 두었다는 점에서 A계열의 다른 이본과는 체제상 다소 차별되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Ⅲ. 『물명고』 이본의 상호 관계

1. A계열 vs B계열(藏本·鄭本·日本 vs 嘉本·石本·國本)

Ⅱ장에서는 서지상 특징을 기준으로 『물명고』 이본 6종이 크게 두 계열로 나뉠 수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A계열과 B계열의 구분은 비단 서지상 특징 뿐 아니라 표제어 아래 베풀어진 해설과 한글 대응어를 통해서도 뚜렷이 확인된다. 이본 6종의 한글 표기는 각기 조금씩 차이를 보이기는 하지만, <표

2>에 보이듯 A계열에서 동일하게 표기되고, B계열에서 동일하게 표기된 예가 반복적으로 발견된다.

표2-A계열과 B계열의 한글 대응어 비교 ①

표제어	A계열			B계열		
	藏本	鄭本	日本	嘉本	石本	國本
籠鷹	수진매	수진매	수진매	슈진매	슈진매	슈진매
豚	싸뒤디다	싸뒤디다	싸뒤디다	쌍뒤디다	쌍뒤디다	쌍뒤디다
獅子狗	덥펼개	덥펼개	덥펼개	더펼개	더펼개	더펼개
犀	박씨	박씨	박씨	박삐	박삐	박삐
馬	몰	몰	몰	말	말	말
粉菴馬	거흠몰	거흠몰	거흠몰	거흠말	거흠말	거흠말
雀	참새	참새	참새	츄새	츄새	츄새
鹿	사슴	사슴	사슴	수슴	수슴	수슴
狗連	개흐르다	개흐르다	개흐르다	기흐르다	기흐르다	기흐르다
獬犬	미틴개	미틴개	미친개	미틴기	미틴기	미던기
天名精	독덥이나물	독덥이나물	독덥이나물	둑덥이나물	둑덥이나물	둑덥이나물

A계열 3종은 ‘籠鷹(농웅)’의 한글 대응어를 ‘수진매’로 표기했고, B계열 3종은 ‘手陳매’의 ‘手’에 대하여 ‘수’를 ‘슈’로 표기한 ‘슈진매’로 표기했다. ‘豚(걸)’의 한글 대응어는 ‘A계열/B계열’에 각각 ‘싸뒤디다/쌍뒤디다’가 제시되었는데, 이는 현대국어의 ‘땅’에 해당되는 말을 A계열에서는 ‘싸’로, B계열에서는 ‘쌍’으로 표기한 것이다. ‘獅子狗(사자구)’의 경우 A계열에는 모두 ‘덥펼개’로 중철 표기되었지만, B계열은 모두 ‘더펼개’로 표기되었다. ‘犀(서)’는 A계열에서 ‘박씨’로 표기된 반면 B계열에서는 ‘ㅂ’계 합용병서를 사용한 ‘박삐’의 표기되었다.

한편, 아래아 표기의 경우 A계열은 ‘馬(마)’의 한글 대응어로 아래아를 사용한 ‘몰’로 표기했고, B계열은 ‘말’로 표기했다. ‘몰/말’이 포함된 합성어의

경우에도 ‘거홀말/거홀말, 용한<sub>말</sub>/용훈<sub>말</sub>’ 등과 같이 A계열은 대체로 ‘말’로 표기하고 B계열은 ‘말’로 표기한 경향이 강하다. 이와 달리 ‘狗(구)’가 결합한 합성어의 경우 ‘개호르다/기호르다, 미틴개/미틴기’와 같이 A계열은 ‘개’로 표기하고, B계열은 아래아를 사용한 ‘기’로 표기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sup>39</sup> 또한 ‘雀(작), 鹿(녹), 纛車(소거)’ 등의 경우에도 A계열은 모두 ‘참새, 사슴, 자이’로 표기한 반면, B계열은 ‘참식, 스슴, 즈익’로 표기하여 계열별로 동일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A계열 3종과 B계열 3종이 동일한 표기를 보이는 경향은 『물명고』 전반에 걸쳐 관찰된다.

표3-A계열과 B계열의 한글 대응어 비교 ②

표제어	A계열			B계열		
	藏本	鄭本	日本	嘉本	石本	國本
造化鳥	종달이	종달이	종달이	종달새	종달새	종달새
蠹	소옴티	소옴티	소옴티	소옴털	소옴털	소옴털
斯蠹	뿔도기	뿔도기	뿔도기	여치	여치	여치

또한 단순 표기 차이가 아닌 어휘 자체가 다르게 제시된 경우에도 A계열과 B계열이 동일하게 형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造化鳥(조화조)’는 A계열에서 ‘종달’에 접미사 ‘-이’가 결합된 ‘종달이’로 전사되었으나, B계열에서는 ‘종달/종달’에 ‘새’가 결합된 ‘종달새/종달새’로 나타난다. ‘蠹(취)’는 A계열에서 ‘소옴’에 물건을 의미하는 ‘치’가 결합한 형태인 ‘소옴치’에서 구개음

39 이는 아래아를 사용함에 있어 A계열끼리, B계열끼리 강한 경향성을 공유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단어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을 밝혀 둔다. 가령 ‘삿흰말’의 경우 A계열과 B계열 모두 동일하게 ‘말’로 표기했고, ‘개, 삼살개’ 등도 6종에서 모두 ‘개’로 통일된 양상을 보인다. 이렇게 6종에 모두 동일하게 표기된 경우도 있으나, A계열에는 ‘말, 개’로 표기한 경우가 우세하고 B계열에는 ‘말, 기’로 표기한 예가 우세하며, 이러한 경향은 A계열끼리, 그리고 B계열끼리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표4-A계열과 B계열의 한글 대응어 비교 ③

표제어	A계열			B계열		
	藏本	鄭本	日本	嘉本	石本	國本
罌	덫치그물	덫치그물	덫치그물	덫치그물	덫치그물	덫치그물
斑鷁	아롱뿔비들기	아롱뿔비들기	아롱뿔비들기	아롱뿔비들기	아롱뿔비들기	아롱뿔비들기
飄翎	쌔깃	쌔깃	쌔깃	쌔깃	쌔깃	쌔깃
絲瓜	슈세외	슈세외	슈세외	주세외	주세외 <sup>39</sup>	주세외
馬蘄	리라리	리라리	리라리	누리라리	누리라리	누리라리
苦參	고비암의경자	고비암의경자	고비암의경자	근비암의경자	근비암의경자	근비암의경자

화 과도교정을 가한 ‘소옴티’로 표기되었는데, B계열은 ‘소옴’에 ‘털’이 결합된 ‘소옴털’로 표기되어 있다. ‘斯蠡(사중)’은 A계열에서 ‘뿔도기’로 나타나지만 B계열에서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여치’로 제시되었다.

그뿐만 아니라 A계열과 B계열은 표기 오류를 답습하는 양상도 동일하게 확인된다. B계열에서는 ‘덫치그물’의 ‘덫’을 ‘텃’으로 썼다든지, ‘아롱뿔비들기’의 ‘뿔’을 ‘뿔’으로, ‘쌔깃’을 ‘쌔깃’으로, ‘슈세외’를 ‘주세외’로 쓰는 등 저본의 글자를 잘못 판독한 결과가 3종에 그대로 반영된 것을 볼 수 있다. 더욱이 다음의 예는 한글 표기를 넘어 한자 판독의 오류까지 해당 계열에 따라 그대로 답습한 예를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1) 苦參【枝葉花實一如槐而고비암의경자】(藏本 坤: 2a, 鄭本 下: 2a, 日本 三:11b)

苦參【枝葉花實一如槐而근비암의경자】(國本 54b)

苦參【枝葉花實一如槐而근비양의경자】(嘉本·石本 二: 1b)

(2) ○ 馬蘄【生卑濕 葉似水芹而微小 五六月碎花 攢簇如蛇牀 青白色 根白 長尺許

40 ‘주세외’로 썼다가 ‘수세외’로 수정한 흔적이 있다.

子黃黑 据文 是今리라리 而郭璞子入藥 誤混蛇牀而然歟】(藏本 坤: 16a, 鄭本 下: 16a, 日本 三: 22b)

○ 馬蘄【生卑濕 葉似水芹而微小 五六月碎花 攢簇如蛇牀 青白色 根白 長尺許 子黃黑 据文 是今리라리 而郭璞子入藥 誤混蛇牀而然歟】(嘉本·石本 二: 17a, 國本 70a)

표5-A계열과 B계열의 오류 답습의 예

이본 한글 대응어	A계열			B계열		
	藏本	鄭本	日本	嘉本	石本	國本
비암의경자						
리라리						

‘苦參(고삼)’은 A계열이 오류를 답습한 예를 보여준다. 한문 문리상 ‘苦參’의 주해는 B계열과 같이 ‘枝葉花實 一如槐而已(가지, 잎, 꽃, 열매가 모두 ‘槐’와 같을 따름이다.)’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苦參’의 한글 대응어 ‘비암의경자’가 현대국어에서 ‘뱀의정자나무’로 이어진 것을 감안하면 A계열의 ‘비암의경자’ 앞에 ‘고’자는 ‘已’를 잘못 전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馬蘄(마기)’는 반대로 B계열이 오류를 답습한 예이다. A계열에 따르면 ‘馬蘄’에 대한 주해는 본래 ‘是今리라리(이는 지금의 리라리이다.)’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B계열에는 ‘今’자를 잘못 판독한 결과 ‘是~~느~~리라리’로 전사한 것이다.

이러한 ‘오류의 답습’은 단순히 우연으로 돌리기 어려운 성질의 것이라 할 수 있다. 각 계열 간에 ‘보고 베끼는’ 관계가 전제되지 않는다면 마땅히 설명할 방법을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고 베끼는’ 관계를 전제하더라도 무엇이 무엇을 대상으로 삼은 것인지 각 계열별로 이본 간의 선후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 2. A계열의 선후 관계

A계열 중 결본인 鄭본에 관한 논의는 뒤로 미루고, 먼저 체제상 차이를 보이는 藏본과 日본의 선후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유희 후손가에 전하는 藏본이 유희의 친필 원본을 저본으로 전사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日본은 무엇을 저본으로 하여 전사된 것일까. 여기에는 2가지 가능성이 열려 있다. 하나는 藏본과 같이 유희의 친필 원본을 저본으로 했을 가능성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A계열인 藏본을 저본으로 삼았을 가능성이다.<sup>41</sup> 다음의 예를 통해 두 가능성을 점검해 보기로 하자.

- (3) 鵜鵬【如鵜甚大 灰色 喙長尺餘 頷下胡如數升囊 사드새<sup>42</sup>】 犁鵬·洿澤·洵河·  
洵鵬·澤虞(藏本 乾: 3b, 鄭本 上: 3b)

41 鄭본은 수족 부분이 없는 결본이므로 日본의 저본이 되었을 가능성은 생각하기 어렵다.

42 鄭本(上: 3b)의 한문 주해는 藏본과 일치하나, 한글 대응어가 ‘사다새’로 표기되어 있다.

鵜鶘【如鵜甚大 灰色 喙長尺餘 頷下胡如數升囊 사드 새】 鵜鶘·洿澤·洵河·洵  
鵜·澤虞【同 ○ 元本無同 而似漏 故敢添書之】(日本 一: 3a)

鵜鶘【如鵜甚大 灰色 喙長尺餘 頷下胡如數升囊 사드 새】 鵜鶘·洿澤·洵河·洵  
鵜·澤虞【同】(嘉本·石本 一: 4a, 國本 4a)

(4) ○ 夏菊【長一二尺 葉如旋花之葉 六七月深黃 花狀如小銅鍔 生溝壑邊 선복  
화】(藏本 坤: 10b, 鄭本 下: 10b)

○ 夏菊【長一二尺 葉如旋花之葉 六七月深黃 花狀如小銅鍔 生溝壑邊 선복  
화】(日本 三: 19b) ※두주로 ‘鍔恐錢 原本同’이 추가되어 있음.

○ 夏菊【長一二尺 葉如旋花之葉 六七月深黃 花狀如小銅錢 生溝壑邊 선복  
화】(嘉本·石本 二: 11a, 國本 64a)

(3)은 각 이본에서 ‘鵜鶘(제호)’의 유의어를 나열한 후 끝에 【同】을 기입  
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예이다. 같은 A계열인 藏本·鄭本에는 【同】이 빠져  
있으나, 日本에는 협주로 ‘同’을 기입하고 원본에는 ‘同’ 자가 없으나 빠진  
것으로 보고 감히 첨서했다고 밝혔다. 즉 日本의 저본이었던 ‘원본’에는 ‘同’  
자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日本에서 언급한 ‘원본’은 유희의 친필 원본  
일 수도 있고, 藏本에도 ‘同’ 자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藏본일 가능성도 존  
재한다.

(4)는 ‘夏菊(하국)’의 주해 중 ‘小銅鍔’에 대하여 ‘鍔恐錢 原本同’이라는 두  
주가 추가된 예이다. 이는 ‘鍔’ 자가 ‘錢’ 자로 판단되지만 원본과 동일하게 필  
사해 두었다는 의미이다.<sup>43</sup> 藏本에 ‘鍔’ 자로 표기되었기 때문에 이 또한 藏本  
과 일치한다. 이러한 예들은 日本에서 언급한 ‘원본’이 藏본이라는 충분한 근

43 李時珍, 『本草綱目』 권15 「草·旋覆花」, “頌曰 … 六月開花如菊花 小銅錢大.”에 따르면, ‘小  
銅錢’이 바른 표기이다. 황문환 외, 『물명고 역해 8: 坤, 物無情類·草下 ②』(서울: 역락,  
2023b), 62쪽.

거는 되지 못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A계열의 오류 답습 양상은 日本에서 언급한 ‘원본’이 藏본일 것이라는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앞에서 제시한 ‘고비암의경자’의 예를 다시 가져와 보이면 다음과 같다.

(5) 苦參【枝葉花實 一如槐而고비암의경자】(藏本 坤: 2a, 鄭

本 下: 2a, 日本 三: 11b) ※日本の 두주에는 ‘苦參之參 似蓼 下註似有漏 苦參 고비암의경자 クララ’가 추가되어 있음.

苦參【枝葉花實 一如槐而已비암의경자】(國本 54b)

苦參【枝葉花實 一如槐而已비암의경자】(嘉本·石本

二:1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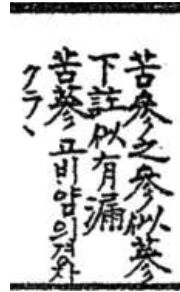


그림8-日本 三: 11b 頭註

만약 아유카이 후사노신이 유희의 친필 원본을 보고 ‘日本’을 전사한 것이라면 협주의 문리를 이해하고 B계열과 같이 ‘而已’로 표기했을 것이다. 더구나 ‘鍼恐錢’과 같이 원본의 의문점을 두주로 밝혀 적었던 아유카이 후사노신이라면 ‘고’가 아니라 ‘已’가 옳다는 점을 두주로 남겼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그는 두주에서 ‘아래 주해에 누락된 점이 있는 것 같다[下註似有漏].’고 하면서 ‘원본’에 보이는 한글 대응어 ‘고비암의경자’는 의심 없이 그대로 베껴 적은 것이다. 그는 한문 주해가 ‘而’로 끝나는 것만 이상하게 여기고, ‘고비암의경자’의 ‘고’자가 ‘已’자라는 것은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다.

(6) 黃鰓魚【似銀口而大 鰓與腹下皆黃 有力解飛 鰓鰓作聲 鰓之祭也 擒此爪摩 以

代祝告 황어 詩經舊諺解以爲날티 非也】揚【同】(藏本 乾: 21a, 日本 二: 4a)

※鄭본은 수족 부분 누락됨.

黃鰓魚【似銀口而大 鰓與腹下皆黃 有力解飛 鰓鰓作聲 鰓之祭也 擒此爪摩 以

代祝告 황어 詩經舊諺解以爲<sup>날</sup>티 非也】黃鱔·黃頰魚·鰈·魰·楊魚·黃鱗

【同】○燕頭魚【似揚而色正黃】黃揚【同】(國本 23b, 石本·嘉本 一: 23b)

이뿐만 아니라 日本이 藏本の 오류를 답습한 예는 한문 주해에서도 나타난다. (6)은 A계열에서 ‘黃頰魚(황상어)’의 유의어로 ‘揚’을 제시한 예이다. 그런데 이 부분을 B계열에서 확인해 보면 ‘揚’ 앞에 ‘黃鱔·黃頰魚·鰈·魰·楊魚·黃鱗【同】○燕頭魚【似揚而色正黃】’이라는 내용이 더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黃頰魚’의 유의어는 ‘揚’이 아닌 ‘黃鱔·黃頰魚·鰈·魰·楊魚·黃鱗’이며, 다음 표제어인 ‘燕頭魚(연두어)’의 유의어가 ‘黃揚’인 것이다. 이는 藏本에서 한행을 빠뜨린 것을 日本이 답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오류의 답습은 日本의 저본이 藏본이었음을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sup>44</sup>

이제 형태 서지적으로 매우 유사한 藏本과 鄭本の 상호 관계에 대해 살펴보자. 藏本과 鄭本은 행수와 자수, 글자의 위치까지 거의 동일하게 배치되어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 두 이본이 형태 서지적으로 극히 유사하다는 것은 어느 하나가 다른 것을 베꼈을 가능성이 농후함을 의미한다. 이 점을 감안한다면 藏本과 鄭本の 선후 관계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II장에서 살펴보았듯이 藏本과 鄭本の 가장 두드러진 차이는 鄭本에 수족부분 전체가 누락되어 있다는 점과, 하책의 난하에 추기 사항이 다수 발견된다는 점이다. 鄭本 난하에 추기 사항은 총 12곳에 나타난다.

藏本에도 난하의 추기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藏本の ‘坤: 11a, 坤: 11b, 坤: 13b’ 총 3곳에는 鄭本과 동일하게 ‘疑’가 추기되어 있다. 鄭本에는 藏本에 없는 추기 사항도 9곳에 보인다. 藏本이 鄭本을 보고 베낀 것이라면

44 日本이 藏本을 저본으로 한 것임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日本은 『문통』 간행을 시작한 1931년에서 『조선어사전』이 편찬된 1938년 사이에 전사된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鄭본에 추가 사항이 더 많이 적혀 있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따라서 鄭본이 藏본을 보고 베낀 것이라고 보아야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먼저 藏본과 鄭본에 공통적으로 ‘疑’가 추가된 곳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 (7) 升麻【아상이 苗高二三尺 葉似白芷 花似粟穗白色 가쌍두릅】周麻(藏본 坤: 11a)  
 升麻【아상이 苗高二三尺 葉似白芷 花似粟穗白色 가쌍두릅】周麻【同】(鄭본 下: 11a)
- (8) 羌活【아상이 苗葉如青麻 六月開花 或黃或紫 강호리】羌青·獨搖草·護羌使者·胡王使者·長生草【同】(藏본 坤: 11b) ※‘아상이’가 협주가 아닌 표제어 ‘羌活’ 옆에 추가됨.  
 羌活【아상이 苗葉如青麻 六月開花 或黃或紫 강호리】羌青·獨搖草·護羌使者·胡王使者·長生草【同】(鄭본 下: 11b) ※‘아상이’가 본문 협주에 들어가 있음.
- (9) 天黃【沈生地黃於水中 沈者爲地黃 其浮者曰天黃】(藏본 坤: 13b)  
 天黃【沈生地黃於水中 沈者爲地黃 其浮者爲天黃】(鄭본 下: 13b)

藏본에는 (7) ‘周麻(주마)’가 ‘升麻(승마)’의 유의어지만 ‘同’이 없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의문[疑]을 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鄭본은 ‘疑’를 그대로 두되 협주에 ‘同’ 자를 써 놓았다. 이는 鄭본의 전사자가 藏본의 ‘疑’를 보고 ‘同’이 빠진 것이라 판단하여 ‘同’ 자를 추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8)은 표제어 ‘羌活(강활)’ 옆에 ‘아상이’를 추가하고 그 정확한 위치가 맞는지 의문이 들어 난하에 ‘疑’를 추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鄭본의 전사자는 ‘아상이’를 ‘羌活’ 바로 아래에 적어 藏본의 추기를 협주 안에 배치했다. 마지막으로 (9) ‘天黃(천황)’의 주해에도 의문 표시가 있는데 藏본에는 ‘曰’로 쓴 것을 鄭본에서는 ‘爲’로 수정하여 ‘沈者爲地黃’과 호응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10) ○□雀花【迎春之類 葉如槐而有小刺 二月始花 花黃形如爵 嫩時採可點茶 ○

迎金二者 恐是木類 當考】(藏本 坤: 20a)

○\_\_雀花【迎春之類 葉如槐而有小刺 二月始花 花黃形如爵 嫩時採可點茶 ○

迎金二者 恐是木類 當考】(鄭本 下: 20a)

○金雀花【迎春之類 葉如槐而有小刺 二月始花 花黃形如爵 嫩時採可點茶 ○

迎金二者 恐是木類 當考】(日本 三: 25b, 嘉本 二: 21a, 國本 74a)

- (11) 鑑【器名 方如斗 四面鏤穴 底有風窓 以盤設水 而承其下 置飲食其上 以傷敗壞】(藏本 坤: 57a)

鑑【器名 方如斗 四面鏤穴 底有風窓 以盤設水 而承其下 置飲食其上 以防傷敗】(鄭本 下: 58a)

(10)은 난하의 후기 사항이 鄭본에만 나타난 예이다. 日本과 B계열 이본에 표제어가 ‘金雀花(금작화)’로 나오지만, 藏本에서는 글자를 썼다가 첨지로 글자를 가렸다. 鄭본은 이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두고 난하에 ‘疑’라고 후기했는데 이는 藏本에서 삭제한 글자로 인해 완전한 단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鄭본이 빈칸으로 되어 있으므로 藏본이 鄭본을 보고 전사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상정하기 어렵다.<sup>45</sup>

(11) ‘鑑(감)’의 주해는 ‘바닥에 통풍창이 있는 그릇인데 소반에 얼음을 담아 그릇 아래를 괴고 음식을 그 위에 둬으로써 음식이 부패하는 것에 대비한다.’<sup>46</sup>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그러나 藏本에는 ‘以傷敗壞’라고 되어 있어 의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鄭본에서 ‘以防傷敗(부패를 방지한다)’로 수정한 후 난하에 ‘疑’를 추가했다.

45 藏本에서 첨지로 가려진 부분이 日本에는 B계열과 같이 ‘金’자로 제대로 전사되었다. 이 점은 日本이 藏本을 저본으로 했을 것이라는 이 글의 주장과 반대되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

46 황문환 외, 『물명고 역해 13: 坤, 物不靜類』(서울: 역락, 2023c), 268쪽.

표6-藏본과 鄭본의 경음 표기 비교

藏본 출전	표제어	藏본	鄭본	藏본 출전	표제어	藏본	鄭본
坤: 04a	覆盆子	곰딸기	곰딸기	坤: 49b	鐸	때임질	때임질
坤: 25a	蒂	싹디	싹디	坤: 51a	生鐵梢	쇠숯	쇠숯
坤: 25b	析	싹다	싹다	坤: 52a	炙	쪄다	쪄다
坤: 25b	斯	쏘기다	쏘개다	坤: 52a	烝	쪄다	쪄다
坤: 30b	桑	쑤	쑤	坤: 52a	滅	꺼지다	꺼지다
坤: 39b	白石李	회싹	회싹	坤: 52b	玉膽瓶	불싹	불싹
坤: 42b	草坯子	쪄당이	쪄당이	坤: 53a	雷墨	별숯	별숯
坤: 42b	塵	싹글	싹글	坤: 55a	窰穀	쏘아리	쏘아리

이 밖에 鄭본은 하책 후반부로 갈수록 아래아의 사용을 줄이고, 경음 표기에 각자 병서를 사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물부정류 이후로는 ‘쪄다, 쏘아리’를 제외한 모든 경음 표기가 각자 병서로 표기되었고 아래아는 전혀 사용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표기 양상은 鄭본이 藏본에 비해 후대에 전사되었을 가능성을 뒷받침해 줄 수 있다.

이상에서 鄭본에는 결락된 부분이 있다는 점, 藏본 난하의 후기 사항이 鄭본에서 수정된 점, 후반부에 아래아를 사용하지 않은 점과 경음 표기에 대부분 각자 병서가 사용되었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鄭본은 藏본을 저본으로 하여 보다 늦은 시기에 전사된 것이라 추정된다. 비록 鄭본의 구체적인 전사 시기를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日本이나 鄭본이 원본에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인다는 추정<sup>47)</sup>은 재고될 필요가 있다. 鄭본은 완본이 아닌 데다가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표기상의 후대적 성격이 뚜렷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47 홍윤표, 앞의 논문, 59쪽; 전광현, 앞의 논문, 48쪽.

### 3. B계열의 선후 관계

상술했듯이 B계열 중 嘉本은 石本을 저본으로 하여 필사한 것이다. 따라서 石本과 嘉本은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 그렇다면 B계열 가운데 國本은 石本·嘉本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자.

- (12) ○檜柏【體堅葉尖 質赤 難襍長亦難萎 恐卽향나모】血柏 (81b) \$ 杔 特其葉對生 五六月開白花 … ○黃漆【樹似小榎而大 六月取汁漆物 黃澤如金 東俗謂之황 而取其清如油者 爲水安息香 乾而作塊 爲 (82a~82b) \$ 檜尖【同】(國本 83a)
- 檜柏【體堅葉尖 質赤 難襍長亦難萎 恐卽향나모】血柏【杔 特其葉對生 五六月開白花 … 乾而作塊 爲】檜尖【同】(石本·嘉本 二: 29a~30a)
- 檜柏【體堅葉尖 質赤 難襍長亦難萎 恐卽향나모】血柏·檜尖【同】(藏本 坤: 26b)

國本에는 (12) ‘血柏(혈백)’과 ‘檜尖(회침)’ 사이에 1장(國本 82a~82b)이 잘못 들어가 내용이 이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石本·嘉本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國本の 기록 순서 그대로 전사하여 마치 ‘杔 特其葉對生’ 이하의 내용이 ‘血柏’의 주해처럼 보이도록 처리되었다. 이는 國本이 石本·嘉本보다 더 앞선 시기에 전사되었다는 결정적인 단서라 할 수 있다.

- (13) 通天·夜明·辟寒·辟塵·駭鷄【竝寶犀名】(國本 13a ※ 난상에 ‘白氣一道從本達末謂之通天犀角’이 추가됨. A계열에는 추가 내용 없음.)
- 通天【白氣一道從本達末謂之通天犀角】·夜明·辟寒·辟塵·駭鷄【竝寶犀名】(石本·嘉本 一: 13a)



- (14) 瞿【筍之曲者曰瞿婦之筍】(國본 19a) ※ 난상에 ‘以曲薄爲筍則瞿非筍之曲也’가 추가됨. 藏본에도 동일한 난상 추기가 나타남. 鄭본은 수족 부분이 누락됨.

瞿【以曲薄爲筍曰筍 非筍之曲也 ○筍之曲者曰瞿婦之筍】(石본·嘉본 一: 19a)

- (15) 蚌【與蛤同類 而長者通曰蚌 圓者通曰蛤 此蚌 卽海中大蚌 진주조기】(國본 27a) ※ 난상에 ‘생포’가 추가됨.

蚌【與蛤同類 而長者通曰蚌 圓者通曰蛤 此蚌 卽海中大蚌 진주조기 생포】  
(石본·嘉본 二: 27b)

- (16) 地榆【初生布地 獨莖直 高三四尺 對生葉似榆葉而細長 有鋸齒 七月開花紫黑色 按其葉 有甜瓜氣 슈박늑물】(國본 71b) ※ 본문의 ‘슈박’을 ‘외’로 수정하고 ‘슈박풀은 따로 잇슴’이라고 추가함. 난상에는 ‘외나물’을 추가함.

地榆【初生布地 獨莖直 高三四尺 對生葉似榆葉而細長 有鋸齒 七月開花紫黑色 按其葉 有甜瓜氣 외나물】(石본·嘉본 二: 18b)

- (17) 藜蘆【葉似初出櫻心 又似車前 莖如葱 白而青紫色 外有黑毛裊如櫻皮 有花肉紅色 根如馬腸根 호라미죽】(國본 46b) ※ 난상에 ‘東醫藥 皆云박새’가 추가됨. A계열에는 추가 내용 없음.

藜蘆【葉似初出櫻心 又似車前 莖如葱 白而青紫色 外有黑毛裊如櫻皮 有花肉紅色 根如馬腸根 東醫方藥 皆云박새】(石본·嘉본 一: 47a)

國본의 난상에 추가된 내용을 石본·嘉본에서는 본문에 반영해 넣은 경우도 확인된다. (13)은 國본의 난상에 추가된 ‘白氣一道從本達末謂之通天犀角’을 石본·嘉본에서는 ‘通天(통천)’ 아래에 협주로 배치한 것을 보여준다. (14)는 國본의 난상에 추가된 ‘以曲薄爲筍則瞿非筍之曲也’를 石본·嘉본에서는 ‘瞿(류)’ 아래에 협주로 배치한 예이다. (15)는 ‘國본’의 난상에 추가된 ‘생포’를 石본·嘉본에서 ‘진주조기’ 다음에 삽입해 넣은 예이다. (16)은 國본에

서 ‘地榆(지유)’의 한글 대응어 ‘슈박늑물’을 수정한 예이다. 필사자는 ‘수박  
풀’은 따로 있으므로 ‘슈박늑물’을 ‘외나물’로 수정해야 한다고 추기했다. 石  
본·嘉본은 國본의 추기 내용을 반영하여 한글 대응어를 ‘외나물’로만 제시  
한 것을 볼 수 있다. (17)은 國본 ‘藜蘆(여로)’의 한글 대응어로 ‘호라비쫓’을  
제시하고, 난상에 ‘東醫藥 皆云박새’라고 추기해 두었다. 그런데 石本에서는  
‘호라비쫓’은 버리고 國본의 난상 내용을 취하여 ‘東醫方藥 皆云박새’로 전  
사했고 嘉본은 이를 그대로 따랐다.

요컨대 國본의 필사자는 유희의 『물명고』를 전사한 후, 난상에 자신의 견  
해를 추기하거나 본문에 수정을 가했다. 이것을 石本에서는 본문에 반영했  
고, 嘉본은 石本을 그대로 따랐던 것을 알 수 있다.

(18) 山丹花【此則非杜鵑之類 枝如白楊 葉如女貞 花如石榴 或以此疑躑躅也 아기  
씨꽃】(國本 89a ※ A계열에는 ‘아기씨꽃’이 없음.

山丹花【此則非杜鵑之類 枝如白楊 葉如女貞 花如石榴 或以此疑躑躅也 버선  
꽃 각시꽃 아기씨꽃】(石本·嘉本 二: 36a)

(19) 白頭翁【本經曰 葉似芍藥而大 … 莫或東俗誤用他物 入藥歟】(國本 68b, 石  
本·嘉本 二: 15b) ※ ‘石本·嘉본’은 난상에 ‘才物譜에 주지꽃’이 추기됨.

(20) 水魚<sup>48</sup>【生東海 狀如血蛸 無眼目腹 下如絮 有群蝦來啞 則始能游行 故曰水  
母目蝦 히파리】(國本 24b, 石本·嘉本 一: 24b) ※ ‘嘉본’에만 난상에 ‘물  
엄성선 히파리’가 추기됨.

48 藏本·日本에는 ‘水母’로 되어 있다. 주해에서 ‘故曰水母目蝦’라 한 바와 같이 ‘水魚’는 ‘水母’  
의 오기이다. 황문환·김진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  
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3: 乾, 物有情類-水族(鱗蟲, 介蟲)』(서울: 역락,  
2023a), 256쪽.

한편 石本에는 國本에 나타나지 않는 추가 사항도 존재한다. 國本에는 ‘山丹花(산단화)’ 아래에 한글 대응어 ‘아기씨꽃’이 추가되어 있는데, 石本에는 ‘아기씨꽃’과 함께 ‘버선꽃 각시꽃’이 협주에 더 들어가 있다. 또한 石本의 전사자는 ‘白頭翁(백두옹)’의 난상에 ‘才物譜에 주지꽃’이라 되어 있음을 추기했고, 嘉本도 이 내용을 난상에 그대로 옮겨 적었다. 嘉本의 난상에 추가된 내용은 대부분 石本과 일치하고 다만 2군데에 더 추가가 있을 뿐이다. 嘉本の ‘水魚’ 난상에 추가된 ‘물엄싱선 히파리’가 그 예이다.<sup>49</sup>

이상에서 유희의 『물명고』 이본 6종의 상호 관계를 검토해 보았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이본 6종의 상호 관계는 대략 [그림9]와 같이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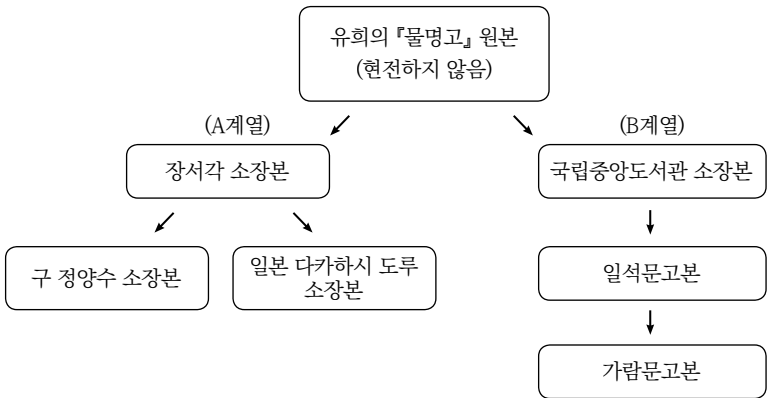


그림9-『물명고』 이본 6종의 상호 관계

그렇다면 A계열과 B계열의 차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는 『물명고』 친필 교정본을 전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이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유근영은 『문통』의 간행을 염두에 두고 정사본을 작성하면서 일실을 대비하

49 나머지 1군데는 嘉本 권2: 20a 난상에 적힌 ‘쪽청디’이다. 본문에 글씨가 명확하지 않아 난상에 다시 쓴 것뿐이다.

여 복본도 만들어 두었다.<sup>50</sup> 유희의 친필본이 현전하는 『방편자구록』을 보면 유희가 집필을 할 때 고심하며 손수 교정한 흔적을 볼 수 있다.<sup>51</sup> 다소 어지럽게 적힌 친필본의 수정·산삭 내용을 전사할 때 전사자에 따라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지 않기도 하고, 또는 전사자가 이해한 대로 위치를 배치하면서 A계열과 B계열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한다. A계열과 B계열에서 단어나 문구가 다르게 반영된 예는 다음과 같다.

(21) 豹臀馬【구불자형 或曰황부루】駘【도화잡불】(藏본 乾: 9b, 鄭본 上: 9b, 日本 一: 7b)

豹臀馬【구불자형】駘【도화잡불 或曰황부루】(國本 10b, 石本·嘉本 一: 10b)

(22) 甕子桐【似岡桐而小 花亦微紅 實大而圓 人多種之 此在四種之外 以入門考之 與白桐近似 猶未可知】紫花桐·油桐·胡桐淚【西域樹 高大 葉如桐 蟲食其樹 汁流凝成 然有鹹氣 抑人造歟】(藏本 坤: 28a, 鄭本 下: 28a)

甕子桐【似岡桐而小 花亦微紅 實大而圓 人多種之 此在四種之外 以入門考之 與白桐近似 猶未可知】紫花桐·油桐·胡桃淚【西域樹 高大 葉如桐 蟲食其樹 汁流凝成 然有鹹氣 抑人造歟】(日本 四: 3a) ※두주로 ‘油桐下似有脫落’이 추가됨.

甕子桐【似岡桐而小 花微紅 實大而圓 人多種之 此在四種之外 以入門考之 與白桐近似 猶未可知】紫花桐·油桐【同 据本註 則荏桐 子可作油 與梧桐異 而四種無青桐 當更考】○胡桐淚【西域樹 高大 葉如桐 蟲食其樹 汁流凝成 然有鹹氣 抑人造歟】(國本 82a, 石本·嘉本 二: 29a~29b)

50 김덕수, 앞의 논문, 236쪽.

51 위의 논문, 266~267쪽.

(21)은 A계열에서 ‘或曰황부루’를 ‘豹臀馬(표둔마)’ 아래 배치한 것을 B계열에서는 다음 표제어인 ‘駟(비)’ 아래에 배치한 것이다. (22)는 A계열에서 ‘紫花桐·油桐·胡桐淚’를 표제어로 처리한 반면 B계열에서는 ‘紫花桐(자화동)·油桐(유동)’을 ‘甕子桐(앵자동)’의 유의어로 처리하고, A계열의 ‘縑絲(소사)’에 달린 주석의 일부인 ‘据本註 則荏桐 子可作油 與梧桐異 而四種無青桐 當更考’를 가져와 배치했다.

이 같은 예들은 『물명고』를 전사하는 과정에서 원본의 수정·산삭된 내용을 전사자 본인이 이해한 방식으로 전사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가 아닌가 한다.<sup>52</sup> 그렇게 한 번 전사된 내용이 또다시 다른 필사자에 의해 그대로 전사되면서 A계열과 B계열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 IV. 결론

이 글에서는 최근 발견된 ‘일석문고본’을 포함하여 총 6종의 유희의 『물명고』 이본을 새롭게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본 간의 상호 관계를 추적해 보았다. 그 결과 대략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이본 6종은 대체로 1930년대에 전사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시기는 유근영이 유희의 유고 『문통』을 간행할 계획을 세우고 이를 위해 정서 작업을 진행한 시기와 일치한다. 둘째, 이본 6종은 크게 두 계열로 구분될 수 있다. 두 계열은 체제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 아니라 한글 대응어에서도 계열별로 공통되는 표기 경향을 보였다. 결정적으로 두 계열은 표기 오류까지 동일하게 답습하고 있는 양상이 확인되었다. 셋째, A계열 내에서는

52 위의 논문에서 『방편자구록』의 사례를 살펴볼 수 있다.

藏본이 나머지 두 이본의 저본일 가능성이 크며, B계열 내에서는 ‘國本→石本→嘉本’의 순서로 전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글은 현존하는 유희의 『물명고』 이본에 대하여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 글의 논의를 통하여 대략적인 이본 계열과 계열 내 선후 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두 계열에서 가장 먼저 전사된 이본을 藏本과 國本으로 상정하면서도 정작 둘 사이의 상호 관계에 대하여는 더 이상의 논의를 전개하지 못했다. 유희의 친필 원본의 행방을 알 수 없는 현재로서는 藏本과 國本 중 무엇이 원본에 가까운지를 앞으로의 과제로 돌릴 수밖에 없다. 『물명고』 연구에 정확성을 기하고자 할 경우 적어도 藏本과 國本을 중심으로 한 이본 대비가 필수적임을 강조해 두고자 한다.<sup>53</sup>

---

53 藏本에는 한문 기술에서 비교적 오류가 많이 나타나고 國本에서는 한글 대응어의 표기 오류가 비교적 많은 경향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더욱 자세한 이본 대비가 필요하다. 石本을 제외한 이본 5종의 전체 대비 결과는 ‘황문환·김건곤·김동석·김봉좌·김일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원훈·조영준·황선엽, 『물명고 역해 14: 원문편』(서울: 역락, 2023d)’을 참조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柳僖, 『物名考』.

李時珍, 『本草綱目』.

### 2. 논저

강명숙, 「高橋亨의 「조선 교육제도 약사」에 대한 일 고찰: 일제강점기 조선 거주 일본인의 한국교육사 연구와 그 한계」, 『한국교육사학』 38-4, 2016, 1~24쪽.

김대식, 「『물명류고』의 생물학적 연구: 물고기 이름 분류를 중심으로」, 『새국어생활』 10-3, 2000, 63~75쪽.

김덕수, 「文通의 계통 연구: 句錄과 文錄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37-3, 2014, 258~296쪽.

김용태, 「高橋亨의 조선학, 『李朝佛敎』와 조선사상의 특성」, 『한국사상사학』 61, 2019, 79~106쪽.

김형태, 『물명고(상·하)』, 서울: 소명출판, 2019.

양연희, 「物名類攷에 관한 고찰: 語彙, 音韻과 文字表記를 中心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6.

류재중, 「류희 「문통」의 여정(旅程)」, 진주류씨대종회(편), 『晉州柳氏詩文資料集(西陂 柳僖 家門의 詩文集) 七卷』, 광명: 진주류씨대종회, 2023, 664~721쪽.

오보라, 「西陂 柳僖 文學 研究」,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유희, 『物名考·物譜』(影印本), 서울: 경문사, 1975.

이병근, 『10월의 문화인물: 유희』, 서울: 문화관광부 한국문화예술진흥원, 2000.

이병기(지),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편), 『가람 이병기 전집 9: 일기 IV』, 전주: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2021.

장유승, 「『方便子文錄』異本 研究」, 『한국실학연구』 32, 2016, 49~78쪽.

전광현, 「『물명류고』의 이본과 국어학적 특징에 대한 관건」, 『새국어생활』 10-3, 2000, 43~62쪽.

정양수, 「내가 아는 柳僖와 그 關聯資料考」,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生涯와國語學資料集』,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75~96쪽.

- 조재윤, 「[物名類攷]의 研究: 表記와 音韻을 中心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8.
- 진주류씨대종회(편), 『晉州柳氏詩文資料集(西陂 柳僖 家門의 詩文集) 七卷』, 광명: 진주류씨대종회, 2023.
-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 한국학중앙연구원(편),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 홍윤표, 「柳僖의 『物名攷』」, 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편), 『柳僖의 生涯와 國語學 資料集』, 서울: 한국어문교육연구회·한국어문회, 2000, 43~74쪽.
- 황문환, 「『物名考』 해제」, 한국학중앙연구원(편), 『晉州柳氏 西陂柳僖全書 I』,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07, 10~12쪽.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3: 乾, 物有情類·水族(鱗蟲, 介蟲)』, 서울: 역락, 2023a.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8: 坤, 物無情類·草下 ②』, 서울: 역락, 2023b.
- 황문환·김건곤·김덕수·김동석·김봉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이화숙·조영준·조정아·황선엽, 『물명고 역해 13: 坤, 物不靜類』, 서울: 역락, 2023c.
- 황문환·김건곤·김동석·김봉좌·김일권·김정민·박부자·박용만·안장리·원훈·조영준·황선엽, 『물명고 역해 14: 원문편』, 서울: 역락, 2023d.
- 高橋亨, 「物名考解説」, 『朝鮮學報』 16, pp. 1960, 409~414.
- 朝鮮學會, 「物名考 卷一」, 『朝鮮學報』 16, pp. 1960a, 199~223.
- 朝鮮學會, 「物名考 卷二」, 『朝鮮學報』 17, pp. 1960b, 215~242.
- 朝鮮學會, 「物名考 卷三」, 『朝鮮學報』 18, pp. 1961a, 159~216.
- 朝鮮學會, 「物名考 卷四」, 『朝鮮學報』 19, pp. 1961b, 193~218.
- 朝鮮學會, 「物名考 卷五 正誤·攷「正·索引」」, 『朝鮮學報』 20, 1961c, 179~248쪽.

### 3. 기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s://encykorea.aks.ac.kr>).



## 국문초록

이 글에서는 최근 발견된 ‘일석문고본’을 포함하여 유희의 『물명고』 이본 6종을 비교했다. 이 연구에서는 이본의 서지 사항을 새롭게 점검하고 이본 대비를 바탕으로 이본 간의 상호 관계를 추적했다. 문헌 기록을 통해 이본 6종의 전사 시기와 전사자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추정해 보았다. 이본들의 전사 시기는 유희의 증손 유근영(1897~1949)이 『문통』 간행을 위하여 유희의 유고를 정서했던 시기와 대체로 일치했다.

현존 이본은 크게 보아 두 계열로 구분되었다. 두 계열은 체제상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일 뿐만 아니라, 한글 대응어에서도 계열별로 동일하게 표기한 경향을 보이며, 오류까지 답습하는 양상을 보였다. A계열 내에서는 藏본이 鄭본·日本의 저본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았다. B계열 내에서는 ‘國本→石本→嘉本’의 순서로 전사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글은 현존하는 『물명고』 이본에 대하여 단순한 ‘소개’가 아니라 상호 관계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대략적인 이본 계열과 계열 내 선후 관계는 어느 정도 드러났을 것으로 믿는다.

투고일 2024. 1. 7.

심사일 2024. 1. 26.

게재 확정일 2024. 2. 14.

주제어(keywords) 물명고(*Mulmyeonggo*), 물명고 이본(versions of *Mulmyeonggo*), 문통(*Muntong*), 유희(Yu Hee), 유근영(Yu Geunyoung)

## Abstract

### Versions of *Mulmyeonggo* and Their Interrelationships

Park, Kkotsaemi · Hwang, Munhwan

In this study, we analyze six versions of Yu Hee's *Mulmyeonggo*, including the recently discovered "Ilseok Mungo" edition. We re-examined the bibliographic details of these versions and traced their relationships based on a comparative approach. Utilizing historical documents, we endeavored to identify the exact transcription periods and scribes of these six versions.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transcription times align with the period when Yu Hee's great-grandson, Yu Geun-Young (1897–1949), was undertaking clean transcriptions of Yu Hee's posthumous works, for the publication of *Muntong*.

The currently available versions of the text are primarily classified into two distinct lineages that not only demonstrate clear differences in structure, but also show similar patterns in the use of corresponding Korean words and even the replication of errors. Within Lineage A, it appears that the Jangseogak edition may have been the foundational text for the Old Jeong Yang-Soo edition and Takahashi Toru edition. For Lineage B, it is believed that the transcription sequence was as follows: National Library of Korea edition → Ilseok Mungo edition → Garam Mungo edition.

Rather than simply introducing the existing versions of *Mulmyeonggo*, this study concentrates on deciphering their interconnections. The analysis presented in this paper sheds light on the approximate lineages of the versions and the order of their development within each lineage.